

꿀찌가 세상을 바꾼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스틸과 서스펜스가 있는 것이 아니다. 소설과 콩트만 반전(反轉)의 기교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특히 드라마에서도 흥미진진한 사건이 연일 펼쳐지고 극적인 반전도 뒤따른다. 일의 형세가 갑자기 뒤바뀌는 상황 전개... 오죽하면 현대를 '경제 전쟁' '특허 전쟁'의 시대로 빗대어 표현할까.

꿀찌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지 않던가. 느림보 거북이 달리기 경주에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토끼를 이기지 않았는가 말이다. 자만하며 중간에서 낮잠을 잔 토끼는 거북에게 뒤통수를 얻어맞는다. 사람들은 이처럼 게으름을 피우거나 사소한 일을 묵살하다가 큰 화를 자초하고 만다. 주객이 전도되거나 승리와 패배가 엇갈리는 등 상황이 반전되는 모습들이 참으로 극적이다.

푸른 마라토너는 점점 더 나와 가까워졌다. 드디어 나는 그의 표정을 볼

수있었다. 나는 그런 표정을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지껏 그렇게 정직하게 고통스런 얼굴을, 그렇게 정직하게 고독한 얼굴을 본 적이 없다. ...나는 용감하게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내리며 그를 향해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환성을 질렀다. 끝까지 달려서 끝인한 꿀찌 주자도 좋아하게 될 것 같다. 그 무서운 고통과 고독을 이긴 의지력 때문에.

소설가 박완서의 산문〈꿀찌에게 보내는 갈채〉 중의 한 대목이다. 그렇다. 정말이지 인생은 마라톤이다. 영광의 월계관을 쓰는 우승자가 아니라도 좋다. 마지막 끝인 지점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린 마라토너라면 갈채를 받아도 부족함이 없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라는 말도 있다.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일등과 꿀찌로 쉽게 순위를 매기는 세상이 역겨울 때가 있다. 일등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꿀찌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가치 체계를 뒤흔들고 싶을 때가 많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꿀찌들의 '혁명'

제발 외면하지 말라! 세계 도처에서 꿀찌들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음을 부인하지 말라. 초등학교 졸업 학력이나 열등생 수준의 성적표로 거대 기업을 일구어 낸 사람들의 입지전적인 신화는 꿀찌만이 맞출 수 있는 무용담이다.

요즘 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많다. 특히 음식점 상호나 회사 이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전쟁은 자못 치열하다. 수원의 곰탕집 '합자회사현풍할매집' 과 서초동의 '현풍할매집 곰탕' 이 서로 비슷한 간판 때문에 송사를 벌이는 게 그 좋은 예다. 회사의 상호로登記했는데도 특허청에 상표를 등

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애를 먹고 있다. 둘 중 어느 한쪽이 먼저 서비스표로 등록했다더라면 이런 분쟁에 휘말리진 않았을 것이다.

세계 반도체 산업의 선두 주자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는 특허 전쟁에서 승리한 대표적 기업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일본과 한국의 반도체가 시장을 잠식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일본과 우리나라 기업들은 거액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다. 나름대로 특허를 가지고 있던 일본 기업들은 소액의 로열티로 소송을 끝냈지만, 마땅히 내세울 만한 특허가 없던 국내의 한 반도체 회사는 그 당시 680억 원이라는 엄청난 로열티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설렁탕집 ○○옥이 분당 지역에서 분점을 개설하려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다고 판단했던 일로 어려움에 부딪혔다. 강원도에 사는 사람이 ○○옥이라는 상호를 서비스표로 미리 등록해 두었기 때문이다.

후발 주자일 수도 있는 지방의 상표권자가 50년 전통의 선발 주자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선발 주자는 상표권 침해를 우려하여 분점 개설을 망설이고 있다. 강원도에서 서비스표를 등록했다라도 그 효력이 전국에 미친다는 사실을 선발 주자가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던 것이다.

○○옥 주인은 방심했던 나머지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말았다. 서울 지역에선 상호를 먼저 사용한 자로서 보호받을지라도 최초의 장소에만 한정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처지가 안타까울 뿐이다. 일단 상호를 특허청에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하면 전국적으로 독점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모른 탓이다.

서비스표 출원 등록 비용은 신청 때 20여 만 원, 약 1년 뒤 35만 원 등 50~60만 원에 불과하다. 물론 이 돈이 아까워 상표 출원을 포기한 것은 아

니겠지만 결국 시간과 정력을 소모하며 소송에 휘말려야 하는 사람들은 ○○옥 주인만이 아니다.

서비스표나 상표 등록을 소홀히 하여 유명 기업이나 전통 식당의 간판을 모두 내려야 하는 불행한 일은 얼마든지 있다. 특히 전국적인 체인점 간판을 제작했다가 이를 모두 버리고 상호와 간판을 몽땅 바꿔야 한다면 여간 큰 손실이 아니다. 먼저 서비스표로 출원했다더라면 이런 다툼에서 손실을 입지 않을 뿐더러 거액을 받는 조건으로 이름을 팔거나 빌려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느림보 거북이 달리기 왕자인 토끼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는 특허 전쟁에도 뼈아프게 적용된다. 회사 상호, 식당 이름 등을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해 두자.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경신을 거듭하면 사실상 영구적이다.

한 번 이긴 자가 영원히 이길 수도 있다니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가. 한 번 실패한 토끼는 다음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겠지만 특허 전쟁에선 승리를 영원히 포기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아니, 다시 승부를 걸기 위해선 지독한 경제적 출혈도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막대한 돈을 로열티로 지불해야만 현상유지를 할 수 있는 처지가 된다.

MF구제 금융 시대를 경험한 우리도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다는 걸 특허 전쟁은 시사하고 있다. 느림보 거북이 토끼를 이기고 꼴찌가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